

# 노년기 주거상황과 인구학적 요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 Association between housing status and demographic factors in later life

이 인 수\*  
Lee, In-Soo

### Abstract

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to analyze association between general housing statu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family extension period, total fertility within a family, male birth rates, and birth order among the elderly in Korea. In this study, 183 subjects aged late 60s to 70s were interviewed for their childbearing history under legal marriage and current housing status such as tenure, residence(urban vs rural), and household composition. In this study, average term from the first to the last birth is 11.88 years, and total number of live births is 4.51. The average rate of male births among live births within a family is 0.532, which is close to data of Korean statistical office in 1995. There were some association of housing status and the fertility; those living in rented units have longer family extension period and rural elderly have higher rate of male children. In addition, there is a significant impact of birth order on tenure. Majority of the first-born subjects were home owners by virtue of bequeath eligibility, and the rate of home owners was 50% higher than the second-born group. Overall in this study, it is recommended that when planning elderly living facilities, service policies be differentiated by both housing & fertility characteristics.

## I. 서 론

### 1. 연구의 의의

60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이른바 老人家口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0%를 넘어서면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노인의 주거문제가 민감한 보건사회학적 연구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사회학적 측면에서의 노년기 주거상황으로는 거주지역, 소유권, 그리고 동거세대수 등이 주요 연구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노인이 도시에서 살아왔느냐 아니면 농촌에서 살아왔느냐는 생활

습관(예: 식사, 취침, 취미활동)이나 문화가치관의 토착화된 차이를 초래하기에 대규모 노인전용 집합주거시설 운영에 있어 도시:농촌 출신 노인별로 차별화된 관리의 지침을 필요로 한다(이인수, 1999). 소유권(예:自家, 전·월세)은 노인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의 재산권 및 사생활 보장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이며(배희선, 1998) 독립적인 주거관리를 하는 노인의 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소유주택을 역저당(reverse mortgage: 주택담보로 노인시설에 입소하고 사망시에는 처분 후 잔여 비용을 결산)하는 조건으로 노인시설 입소를 구상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 평이사, 한서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가정학 박사

주거학에 있어 노인가구의 동거세대수 또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노인 단독가구 비율 산출은 우선 유료 노인 집단주거시설의 보급에 있어 잠재고객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한국노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3; 한국주택협회, 1993)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 중 50% 이상은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유료 노인 시설에 거주하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동료 노인과의 왕성한 사교를 추구하고 싶다고 응답하는 바, 노인단독거주는 곧 노인주거 시설 입소의 전이 단계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또한 자녀나 손자녀와 동거하는 이른바 2, 3세대 동거 노인 가구 비율의 산출은 숙식과 주거생활, 건강관리 등 일차보호(primary care) 가능 노인의 수를 추정하여 노인복지계획을 수립하며, 가사일과 자녀 양육 등에 노부모의 도움이 가능한 세대를 추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된다.

이렇듯 노인이 살아온 거주지역, 주택의 소유권, 그리고 동거세대수 등 노년기 주거상황은 ①노인주거시설의 입주자 관리지침 개발, ②노년기 재산 및 독립생활 능력 규모의 예측, 그리고 ③노인시설의 잠재고객을 산출하는 주요 항목이 된다.

이상에 소개한 주요 주거상황은 원천적으로 자녀수, 자녀양육기간, 자녀 중 아들의 수, 그리고 형제자매 중 출생순위와 같은 기본적인 인구학적 요인에 의해 지배된다. 노후에 이르러 ①자녀와 동거하거나 아니면 별거하여 노인단독가구를 형성하는 것, 혹은 ②소유된 주택에서 생활하거나 세들어 생활하는 것은 노년기 주거생활의 큰 변화인 바 가족내 인구학적 요인과의 인과관계적 흐름에 의해 파생되는 함수다(Casterline, 1993; Crimmins, 1990). 예를 들면 아들이 많은 노인일수록 도시지역에서 자녀세대와 함께 自家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지는데(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이것은 딸에 비해 경제력이 높고 부양책임이 강하게 작용하는 아들

이 많을 수록 문화 및 편의시설이 좋은 도시에서 소유된 주택에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만이로 성장한 노인은 소유된 주택에 사는 비율이 후순위에 비해 현저히 높는데 이것은 만이로 자라난 사람들 중에는 중년기 무렵 부모로부터 집을 상속받은 남자가 많아 전체적으로 볼 때 自家소유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배희선, 1998). 이와 같이 노후의 주거상황은 인구학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고찰되기에, 이러한 관련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를 근거로 좀더 세분화된 노년기 주거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기본적인 주거상황과 인구학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①주거소유, ②동거세대수, 그리고 ③거주지역(도시 vs 농촌)등 기본적인 노년기 주거상황을 ①출산수, ②자녀 性比, ③가족확대기간(최초 자녀출산후부터 출산 종결시까지의 기간), 그리고 ④형제자매 중 출생순위 등 인구학적 요인별로 비교분석함.

2. 이러한 비교분석결과를 근거로 노인주거 관련 정책에 필요한 기초적 지침을 제시함.

## II. 선행연구

결혼 후 노년기에 이르기까지의 긴 기간동안 자신이 출산한 자녀수와 그 자녀 중 아들의 비율, 그리고 그 자녀를 모두 출산하는데 걸린 기간 등 자녀출산 관련 인구학적 요인은 노년기 주거상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선행연구에서 고찰되고 있다. 한국노인문제 연구소(1993)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 중 53%는 아들과의 동거를 가장 이상적인 노후 주거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의 연구에서도 부양능력 있는 자녀수가

많은 노인일수록 자녀와 함께 3세대 가구를 이루며 동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자신이 낳아 기른 자녀의 수, 그리고 자녀 중 아들의 수는 노후의 동거세대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초 자녀 출산후부터 막내 출산시까지의 기간으로 정의되는 가족확대기간(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은 노후 경제사회상태와 주거소유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이 고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구에서는 18-20세 정도가 되면 성인으로 간주하여 부모의 양육의무가 대체로 종결되지만 한국가정의 경우 부모의 무보상적이며 이타적인(altruistic) 지원의지가 강하여, 자녀 교육비의 80%를 지원함은 물론 자녀 신혼기 주거 마련 비용의 60% 정도를 지원한다(이기춘·조은정, 1992). 또한 자녀가 결혼이나 취업으로 부모와 분리된 이후에도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성인자녀의 주거마련이나 기타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지원이전이 부모 생존기간은 물론 사후까지 지속된다(한국은행, 1996). 그렇기에 여러명 자녀를 출산한 기간, 즉 가족확대기간이 긴 부모일수록 고령에 이르러서도 자녀에 대한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지원이 지속된 결과 자신소유의 집에서 노부부만의 독립적인 거주를 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지고 자녀와 더불어 의존적인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출생순위란 형제자매 중 태어난 순서를 의미하는바, 출생당시의 건강상태, 성장과정 중 부양혜택수준, 가족 내 경제활동과 결속유지의 책임, 그리고 유산상속의 우선순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1930-40년대에 출생한 노인들은 초혼 연령이 낮고 자녀를 많이 낳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 성장했기 때문에, 말기로 성장한 사람은 ①청소년기에 동생들의 양육에 기여하고, ②말기의 특성이 강하게 부각되어 재산상속에서 유리한 조건을 차지할 수 있다(배

희선, 1998). 반면 막내로 성장한 사람은 ①형제자매의 도움으로 성장하고, ②재산분배의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한국노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배희선, 1998)에서 나타나듯 한국인 부모는 집, 부동산, 현금 등 경제적 자원을 자녀에 상속하는데 있어 자녀의 출생순위를 중요시하기에 말기로 성장해온 노인은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의 가치가 다른 형제보다 높아 본인소유 집에서 생활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도 잘 설명된다.

이렇듯 자신이 낳아 기른 자녀의 수가 몇 명이고 그중 아들이 몇 명이며, 그 많은 수 자녀를 출산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나 길며, 그리고 자신이 형제자매 중 몇번째로 태어났는가와 관련된 인구학적 요인이야말로 노년기 주거상황을 지배하는 원천적 요인임이 선행연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1997년 3월1일-1998년 11.30일 사이에 경기와 충남지역에 거주하며 법적으로 결혼하여 자녀를 낳은 적이 있는 50세이상 남녀 노인 2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및 가족관계에 관한 종합설문조사”자료중 조사내용이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60세이상 18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항목이 사산이 아닌 생존상태로 출생한 자녀의 성별을 응답자 기억에 근거하여 조사하는 항목이므로 청력과 언어구사능력, 그리고 질문내용중 용어의 정의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을 선택하여 그 설문자료를 분석하였기에 조사분석대상자중 70세이상 노인은 18명에 불과했다. 특히 본 연구 주요 분석과제는 多産시대의 남아출생 비율을 분석하는 것이기에, 1945년 해방이후에 출산을 시작하여 1970년도 이전에 출산을 종료한 사

람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대상자는 4년제 및 전문대학 보건학 분야 학생들이 종합사회복지관, 혹은 노인대학 여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무작위 편의표집에 의해 선정한 사람인바 남자는 54.6%, 여자는 45.4%였으며 그중 62.8%는 현재 배우자가 생존해있지만 나머지 37.2%는 이혼이나 사별한 상태였다. 평균 연령은 70.0이며 응답자중 55.7%는 自家에서 살며 69.9%는 종교(기독교, 불교등)를 가진 사람들이었다(표1).

표 1. 조사대상자 특성(N=183)

항 목	측 정 값
성별(%)	
남	54.6
녀	45.4
혼인상태(%)	
배우자有	62.8
이혼및사별	37.2
연령	
평균	70.0
표준편차	7.63
범위	58-79
주택소유비율(%)	55.7
有종교비율(%)	69.9
가족확대기(년)	
평균	11.88
표준편차	6.83
범위	2-26
총출산수	
평균	4.51
표준편차	1.86
범위	1-12
남아출생비	
평균	0.53
표준편차	0.21
범위	0 -1.0

가족확대기간이란 출산에 의해 가족수가 확대되는 기간으로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동일한 부모로부터 출생한 자녀간 최대연령차, 즉 첫째와 막내의 연령차이는 가족 확대기간과 동일한 기간이다. 본 연구대상의 형제자매간 최대연령차 값은 2-26년의 범위를 보이며 평균은 11.88, 표준편차는 6.83년이었다. 총 출산 수는 최저 2명에서 최고 12명의 범위를 보이고 평균

은 4.51이며 표준편차는 1.86이었으며, 남아출생 비율은 전체 평균이 0.532로서 1995년도 한국통계청에서 전국 출생 신고를 대상으로 조사한 남아비율 0.534(통계청, 1996)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 2. 자료선별 및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주거상황, 그리고 혼인관계에서 정상적으로 출생한 자녀를 기준으로 하는 출산정보가 주요 변인이다. 따라서 연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면접과정에서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는바, 총 285명의 설문조사 노인 중 64.2%의 자료만이 SPSS PC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분석되었다.

①자녀출생이 혼인외의 과정으로 발생했음을 면담도중 진술한 노인(예: 내연의 여자로부터 출생하거나 남을 데려다 키웠거나 친척자녀를 호적에 올렸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한 경우)의 자료

②자녀 중 출생이전에 이미 이름이 붙여졌음을 기억하고 있으나 출생당시 생존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억이 없음을 진술하는 경우(예: 낳자마자 죽거나 양육능력이 없어 누가 데려간 경우)의 자료

③면담도중 진술내용을 자주 반복하거나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 등 진술내용의 신뢰성이 의심 가는 노인의 자료

이러한 선별과정을 거쳐 분석되었기에, 본 연구 결과는 해석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따른다.

①본 연구는 합법적인 결혼에 의해 출생한 경우만을 조사한 것이기에 혼전임신이나 혼인외 출산 등 자연적 원인에 의한 출산을 모두 포함한 출생신고 자료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②본 연구는 직접 면담에 의해 조사한 것이기에 위 ①항에 열거한 혼인 외 출산 경우도 수치심으로 인해 혼인 후 출산으로 뒷隱한 경우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출산수: 출산수란 조사대상자가 합법적인 혼인관계 하에서 출산하고 한달 이내에 사망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자녀수를 말한다. 따라서 이복형제, 입양형제 등은 제외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단 출생하여 한달 이상 생존한 것으로 기억된 자녀는 차후 사망, 실종 여부에 상관없이 성비율 산출에 산정 되었으나 사산, 혹은 출생 후 즉시 사망 등 主産期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는 산출과정에서 제외하였다.

②男兒출생비: 남아출생비란 위에 제시한 총출산수중 남자의 비율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총출산수가 6이고 그 중 男兒가 2명일 때 남아 비율은  $2/6=0.33$ 이 된다.

③가족확대기간: 가족확대기간이란 출산에 의해 가족수가 확대되는 기간으로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동일한 부모로부터 출생한 자녀간 최대연령차, 즉 첫째와 막내의 연령차이는 가족 확대기간과 동일한 기간이다.

④2-3세대 가구: 2세대 가구란 부부와 자녀세대 등 2세대가 거주하는 가구로서 수식으로는 “부모+자녀 동거”로 표시된다. 2세대 가구에 포함된 자녀세대는 미혼자녀나 결혼 후 출산 이전의 자녀가 포함된다. 3세대가구란 3개 세대가 동거하는 가구로서 위에 정의된 2세대에 손자녀가 포함되어 “부모 + 자녀 + 손자녀”로 표시된다.

⑤출생순위: 본 연구에서 출생순위란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모 밑에서 출생한 형제자매중의 순위를 말한다.

경우 평균은 각각 14.98, 11.84, 14.59로서 노인 단독세대, 혹은 자녀 및 손자녀와 함께 사는 대가족에서 확대기가 다소 길게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표 2. 주거상황별 가족확대기간

항 목	평 균	표준편차	사례수	F-ratio(p)
동거세대수				
1세대	14.98	13.12	62	1.33(0.27)
2세대	11.84	7.96	45	
3세대	14.59	9.47	76	
주거소유				
自家	12.74	9.69	102	3.62(0.05)*
전월세	15.71	11.41	81	
거주지역				
市	14.54	10.07	128	5.95(0.02)*
邑面	12.96	11.59	55	

\* :  $p < 0.05$  \*\* :  $p < 0.01$

自家에 사는 가족 경우 확대기간의 평균은 12.74, 표준편차는 9.69이었으며 전·월세 거주 가족 경우 평균은 15.71, 표준편차는 11.41이기에 주택을 소유한 가족의 확대기가 유의하게 낮은 경향을 보인다( $p < 0.05$ ). 즉,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에 대한 헌신적인 지원으로 인해 노년기 경제상태가 열악해져 自家소유 가능성이 적어짐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

市지역에 사는 가족 경우 가족확대기 평균은 14.54, 표준편차는 10.07이었으며 읍·면거주 가족 경우 평균은 12.96, 표준편차는 11.59이기에 도시지역거주 가족의 확대기가 농촌에 비해 다소 길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

## VI. 결과 및 고찰

### 1. 가족확대기간

본 연구의 분석결과 각 주거상황별 가족확대기간은 표2에 정리된다.

현재 노인부부 1세대만이 거주하거나 부모-자녀, 혹은 부모-자녀-손자녀 2-3세대가 거주하는

### 2. 출산수

본 연구의 분석결과 각 주거상황별 총출산수는 표3에 정리된다. 현재 부부 1세대만이 거주하거나 부모-자녀, 혹은 부모-자녀-손자녀 2-3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평균은 각각 4.18, 4.56, 4.59로서 노인과 함께 사는 대가족에서 출산수가 다소 높게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自家에 사는 가족 경우 총 출산수의 평균은 4.33, 표준편차는 1.64이었으며 전·월세 거주 가족 경우 평균은 4.58, 표준편차는 1.86이기에 주택을 소유한 가족의 출산수가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

市지역에 사는 가족 경우 가족내 총출산수 평균은 3.98, 표준편차는 1.85였으며 읍·면거주 가족 경우 평균은 4.65, 표준편차는 0.66 이기에 농촌거주 가족의 출산수가 도시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경향을 보인다(p<0.05).

표 3. 주거상황별 총출산수

항 목	평 균	표준편차	사례수	F-ratio(p)
동거세대수				
1세대	4.18	1.76	62	1.09(0.35)
2세대	4.56	1.57	45	
3세대	4.54	1.81	76	
주거소유				
自家	4.33	1.64	102	0.91(0.34)
전월세	4.58	1.86	81	
거주지역				
市	3.98	1.85	128	5.95(0.02)*
邑面	4.65	1.66	55	

\*:p<0.05

### 3. 자녀性比

본 연구의 분석결과 각 주거상황별 자녀출산性比는 표4에 정리된다.

현재 부부 1세대만이 거주하거나 부모-자녀-손자녀 3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남아출생비 평균은 각각 0.53과 0.57로 높은 편인바 특히 3세대 동거가족의 남아 출생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세대 거주 경우 남아출생비 평균은 0.47로서 매우 낮아 각 세대구성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p<.05).

自家에 사는 가족 경우 남아출생비의 평균은 0.54, 표준편차는 0.23이었으며 전·월세 거주 가족 경우 평균은 0.52, 표준편차는 0.22이기에 주택을 소유한 가족의 남아출생 비율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

市지역에 사는 가족 경우 남아출생비의 평균은 0.50, 표준편차는 0.13이었으며 읍·면거주 가족 경우 평균은 0.54, 표준편차는 0.23 이기에 농촌거주 가족의 남아출생 비율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

표 4. 주거상황별 男兒출생비

항 목	평 균	표준편차	사례수	F-ratio(p)
동거세대수				
1세대	0.53	0.24	62	2.78(0.05)*
2세대	0.47	0.17	45	
3세대	0.57	0.23	76	
주거소유				
自家	0.54	0.23	102	0.18(0.66)
전월세	0.52	0.22	81	
거주지역				
市	0.50	0.13	128	1.623(0.20)
邑面	0.54	0.23	55	

\*:p<.05

### 4. 출생순위

출생순위별 주거상황을 보면(표5), 맏이로 자란 노인 중 노인단독가구수는 35로서 Chi-square test 기대값인 28.6을 훨씬 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맏이로 성장해온 노인은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의 가치가 다른 형제보다 높아 재정 자립도가 크므로 노부부만의 독립적인 생활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형제자매 중 맏이가 아닌 노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3세대 가구로서, 특히 2순위 경우 44.7%이상을 차지하였다. 노인단독 가구는 두번째 비율을 차지하여, 맏이로 자란 노인 경우와 큰 대조를 보였다. 맏이가 아닌 노인들은 과거 우리나라 농촌 경제구조에 비추어 볼 때 토지나 집 등 재산상속 가능성이 맏이에 비해 낮기에 재정자립 기반이 약하기에 노후에 이르러 노인만의 독립 생활 보다는 결혼한 자녀와 함께 살며 의존적인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소유여부는 출생순위와 매우 밀접한 관련

이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자신 혹은 배우자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 노인 비율에 있어 맏이로 태어난 집단은 68.3%, 둘째는 45.6%, 셋째는 50.0%, 그리고 넷째 이후는 54.5%로서, 맏이로 태어난 집단은 둘째로 태어난 집단에 비해 주택 소유 비율이 50%정도 높은 특성을 지닌다. 4개 순위 집단 전체를 분석한 Chi-square 값의 유의수준은 0.07로서 0.05보다 약간 크지만, 맏이와 2순위이상 집단(2,3,4이상을 한개 집단으로 재분류)을 비교한 odds ratio에 있어서는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바( $p<0.01$ ) 맏이로 태어난 사람은 둘째 이후 순위로 태어난 사람에 비해 노후에 자신이나 배우자가 소유한 집에 거주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경우 55.5%만이 농촌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개 출생순위 집단 전체를 분석한 Chi-square 값의 유의수준은 0.13으로서 0.05보다 크지만, 맏이와 2순위이상 집단(2,3,4이상을 한개 집단으로 재분류)을 비교한 odds ratio에서는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바( $p<0.05$ ) 맏이로 태어난 사람은 둘째 이후 순위로 태어난 사람에 비해 노후에 농촌에 거주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60세 이상 노인의 2/3 정도가 도시에 거주하지만(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본 연구 결과 맏이출신 노인은 이보다 훨씬 높은 78.5%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재산상속을 통해 우월한 경제상태를 확보한 맏이경우 198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진행된 핵가족화 및 脫農 都市化(이인수, 1999) 기류에 보다 쉽게 적응하면서 도시로 이주하여 독립적인 노인가구를 형성한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5. 주거상황별 출생순위 비율

항목	출생 순위			
	1 (n=82)	2 (n=74)	3 (n=49)	4 (n=29)
동거세대수				
1세대	42.9	28.1	31.6	31.8
2세대	20.6	24.6	23.7	27.3
3세대	36.5	47.5	44.7	40.0
계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6.43 D.F.=6 P=0.18			
주거소유				
自家	68.3	45.6	50.0	54.5
전월세	31.7	54.4	50.0	45.5
계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6.88 d.f.=3 p=0.07 Odds-ratio=5.33 <sup>1)</sup> p=0.01			
거주지역				
市	78.5	63.8	68.4	54.5
邑面	21.5	36.2	31.6	45.5
계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5.59 d.f.=3 p=0.13 Odds-ratio=4.34 p=0.04			

<sup>1)</sup>2순위 이상을 한 집단으로 분류했을 경우에 한해 유의한 차이가 입증됨

거주지 역시 출생순위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맏이로 태어난 사람중 대부분인 78.5%는 도시에 사는 반면 출생순위가 後순위 일수록 도시에 사는 비율이 작아져 4순위이상

## 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주거상황과 인구학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약 정리된다.

1. 가족확대기간은 동거세대수, 거주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는다.
2. 주택을 소유한 가족의 확대기간은 유의하게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p<0.05$ ) 이것은 자녀양육기간이 길어질 수록 노년기 경제상태가 열악해짐을 의미한다.
3. 자녀출산 수는 동거세대수나 주거소유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지만 농촌거주 가족의 출산 수는 도시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경향을 보인다( $p<0.05$ ).
4. 노인부부 1세대만이 거주하거나 3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남아출생은 매우 높고 2세대 거주 경우 매우 낮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p<0.05$ ).

- 5. 출생순위는 주택 소유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바 맏이 집단은 비맏이 집단에 비해 주택소유 비율이 50%정도 높다.
- 6. 출생순위는 거주지와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는바 우월한 경제상태를 확보한 맏이 경우 脫農 都市이주에 보다 쉽게 적응하여 독립적인 노인가구를 형성한 비율이 높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년기의 주요 주거상황인 ①동거세대수, ②주거소유, ③거주지역은 인구학적 요인과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는바, 노인주거관리에 관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노후에도 전월세 등에서 생활하는 노인은 자가에 거주하는 노인에 비해 가족확대기간이 길다는 점이 노년기 주거관련 정책에 참고되어야 한다. 즉, 전월세 거주 노인은 더욱 젊은 나이에 자녀를 출산하기 시작하여 중년기 이후에 자녀출산이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높는데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자녀 양육으로 인해 건강과 경제능력이 더욱 저하된 집단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 요양시설 등 저소득층 일상생활 보호를 위한 노인주거시설 입주자 선정시 전월세 거주노인 우선의 방침이 반영되어야 한다.
2. 반면 가족확대기간이 긴 전월세 거주 노인 경우 젊은 연령의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특성이 있는바, 이러한 보호시설 거주 노인 가족 중 일상생활 수발 자원봉사를 선정할 때는 이러한 전월세 가족 자녀에게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하는 경영방침도 아울러 병행해야 한다.
3. 농촌출신 노인 경우 자녀수가 많은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농촌거주노인은 노후 자녀와의 동거 가능성이 높고 도시노인은 노인주거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노인주거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전용 주거시설에 경영에 있어서 노인입주자중 자녀

의 방문 및 교류 가능성은 농촌출신 노인이 더욱 크다는 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4. 노인단독가구 혹은 3세대 거주 노인 경우 자녀 중 아들 비율이 높은 반면, 2세대 거주 노인(노인+자녀)은 낮다. 이것은 아들이 많아 아들의 재정지원 가능성이 많으면 노인단독으로 거주하기가 용이하고, 혹은 아들이 많을 경우에만이 자녀가 결혼하여 손자녀를 출산한 후에도 함께 3세대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추정된다. 따라서 2세대 거주 노인가구는 일단 미혼의 딸과 함께 거주할 가능성이 1, 3세보다 높은 집단이라는 점이 노인주거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저소득 재가노인을 위한 주생활관리 지원(주거환경개선, 생필품 제공 등)은 2세대 노인가구를 보다 중점적인 관리대상으로 지정하는 등의 차별화 된 정책이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표 6. 주거상황과 인구학적 요인의 관련성 요약

주거조건	주요 관련 사항
주거소유	①전월세 노인은 가족확대기가 길어 자녀양육으로 인한 건강·경제능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노인시설 입주시 전월세 거주노인이 우선되어야 함. ②가족확대기간이 긴 전월세 거주 노인 경우 젊은 연령의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보호시설 거주 노인 수발 자원봉사 선정시 전월세 노인 자녀 참여를 권유함. ③맏이로 자라난 노인은 둘째 이상 집단에 비해 주택소유 비율이 50%정도 높다.
거주지역	①농촌거주 노인은 자녀수가 많고 자녀와의 동거 가능성이 높은 반면 도시노인은 노인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음. ②시설입소시 자녀방문 가능성은 농촌노인이 높음. ③맏이로 태어난 노인은 우월한 경제상태로 인해 78.5%가 도시에 거주함.
동거세대	①2세대 거주 노인은 아들 비율이 낮아 미혼 딸과 거주할 가능성 큼. ②저소득 재가노인 주생활관리 지원은 2세대 노인가구를 보다 중점적으로 해야 함. ③맏이로 태어난 노인은 재정자립도가 높아 노인 단독가구가 42.9%인 반면, 비맏이 노인은 3세대 가구가 40%이상임.



5. 노인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에 있어, 말이로 자란 노인은 주택이나 기타 부동산 소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착안해 보다 면밀한 경제능력 심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주택 보장 정책에 있어 임대주택 보급은 동일한 조건일 경우 출생순위가 낮은 노인에게 다소의 배려를 더하는 정책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배희선(1998).중.노년기 가계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 移轉.서울대학교 대학원 소비자 아동학과 박사학위 논문.
2. 서병숙·김수현(1999).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 연구, 한국노년학회지 19(2), 97-111.
3.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1991).한국영아의 사망율추정및 사망구조분석.
4. 이기춘·조은정(1992). 도시가계의 결혼비용과 신혼주거자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 p95-113.
5. 이인수(1999). 현대노인복지론. 도서출판 양서원.
6. 통계청(1990).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
7. 통계청(1996).한국의 사회지표.
8.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3).노인생활실태조사. 홍익재
9.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전국 노인생활실태조사 및 정책 과제.
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전국 노인생활실태조사 및 정책 과제.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보건복지포럼 제 18호 p7-17.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보건복지포럼 제 21호 p21-38.
13. 한국은행(1996). 도시가계 저축시장 조사.
14. 한국주택협회(1993).실버산업관련 노인주택에 관한 조사연구.
15. Casterline, J.(1993)."Difference in the Living Arrangement of the Elderly in Four Asian Countries" PSA Research Report Series, No.91-10.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nn Arbor, MI, U.S.A.
16. Crimmins, E.(1990)."Interaction and Living Arrangements of Older Parents and Their Children" Research on Aging, 2(1), p3-35.